



한국의 보물, 해인<41>

『격암유록』의 해인신앙

(지나호에 이어서)

「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

… 바다를 건너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해인의 이치 渡海移山 海印理

… 자하선(紫霞仙) 가운데 금으로 된 계룡이라. 紫霞仙中金 鷄龍

… 해인, 해인, 무슨 해인인가? 화(火), 우(雨), 로(露)라는 사실을 보고서도 모르리라. 화자(化字), 화자(化字), 무슨 화인(化印)인가? 무궁한 조화가 바로 해인일세. 海印海印何海印, 見不知而 火雨露, 化字化字何化印, 無窮造化是海印.

… 해인을 사용하고 부리는 이가 진인일세. 海印用使是眞人. …

「말운론(未運論)」

… 천지해인은 그 누가 어찌 말하는가? 불도대사보혜인(佛道大師保惠印)이라네. 천지인이 셋이니, (해인 역시) 화인(火印), 우인(雨印), 로인(露印) 셋이라네. 삼풍삼인(三豊三印)이니, 하늘 백성이 땅을 다스림이네. 天地海印誰何說? 佛道大師保惠印, 天地人三, 火印, 雨印, 露印, 三豊三印天民揆地. …



『격암유록』 「도하지」

「도하지(道下止)」

… 팔만엽불장경중에 미륵세존이 해인을 가지고 출현하신다네. 八萬念佛藏經中, 彌勒世尊海印出.

… 일명 해인이라 하니, 착한 이에게는 삶을 얻는 물건이요, 악한 이에게는 죽음과 형벌을 내리는 물건이라네. 一名曰, 海印, 善者, 生獲之物, 惡者, 死獄之物.

… 산도 아니고 들도 아닌 양백(兩白) 사이가 바로 궁을(弓乙)이요, 삼풍(三豊) 사이가 바로 해인이라네. 이들을 쓰시는 이는 하늘 권한을 지닌 정씨라네. 그러므로 궁을합덕진인이라 하네. 非山非野兩白之間, 即弓乙. 三豊之間, 海印. 用事者, 天權鄭氏也. 故曰弓乙合德眞人也.

… 해인궁에 일월이 한가롭고 海印龍宮閑日月
… 자하도가 바로 이 땅이라네. 紫霞島中亦此地. …

「농궁가(弄弓歌)」

… 진인이 용사(用事)하시는 해인법을 眞人用事海印法. …

「가사요(歌詞謠)」

-- 보혜사 성인이 해인을 가지고 오시니, 상제의 도덕이 선인(仙人)에게 내려도다. 保惠聖聖海印出, 上帝道德降仙人. …

「길지가(吉地歌)」

… 구원방주(救援枋舟) 놓히 썰네 … 해인조화(海印造化) 낫타난다. …

「십승가(十勝歌)」

… 팔만대장경 안의 보혜대사(普惠大師)는 미륵불의 십승이요, 의상조사의 삼매해인과 정도령의 십승이요. 해외도덕(海外道德)인 보혜대사(保惠大師)는 상제가 재림하시는 십승이니, 유불선 및 그와는 다른 이치, 결국은 다시 합쳐진 십승이다. 八萬經內普惠大師, 彌勒佛之十勝이요, 義相祖師三昧海印, 鄭道令之十勝이요, 海外道德保惠之師, 上帝再臨十勝이니, 儒佛仙異言之說, 未復合理十勝이라. …

「해인가(海印歌)」

… 진시황과 한무제가 구하던 불모초와 불사약이 어디 있나? 일곱 빛깔 무지개가 영롱한 운무 가운데. 단 이슬과 비 같은 해인이다. 불, 비, 이슬의 삼풍해인이니,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표를

발행하니, 조화, 조화, 조화인(造化印)에, 못하는 바가 없는 해인이다. … 火秦皇漢武求下不老草不死藥 어데있소, 虹霞七色雲霧 中에 甘露如雨海印이라. 火雨露三豊海印이니 極樂入卷發行하니 化字化字化字印에 無所不能海印이라. …

「궁을도가(弓乙圖歌)」

… 사람들이 힘을 합쳐 일심으로 합한다면, 각각의 사람들이 해인만 같지 못하랴? … 人人合力一心合이면 原子不如海印이라. … 72가지 재주가 있는 해인과 금척의 무궁한 조화, 하늘이 만세를 부르도다. … 七十二才海印金尺無窮造化 天呼萬歲. …

「가사총론(歌詞總論)」

… 오운육기가 허사가 되니 이름 없는 악질 병을 면할까 보나? 마땅히 오랫동안 엄마를 송주(誦呪)하여 온갖 괴이함을 모두 소멸시키는 해인일세. … 五運六氣 虛事되니 無名惡疾 免할 소나 當服奄麻常誦呪로 萬怪皆消海印일세. …

… 무도(無道)하여 큰 병에 걸린 자들 불사해인(不死海印) 나왔다네. … 無道大病 걸린 者들 不死海印 나왔다네. …

… 해인의 조화를 깨닫지 못하고서야 어찌 계룡 백석(白石)이 될 것인가? … 海印造化不覺하고 鷄龍白石되던말가? …

… 천하이기(天下理氣)의 변운법(變運法)이 해인조화 되었다네. … 天下理氣變運法이 海印造化되었다네. …

「출장론(出將論)」

… 뇌진전선(雷震電閃) 해인조화(海印造化) 천지혼돈(天地混沌) 무서워라. … 인쇄룡궁한일월(印海龍宮閑日月)이요, 무릉도원(武陵桃源) 자하도(紫霞島)를 …

「십승론(十勝論)」

… 구궁팔괘(九宮八卦) 십승대왕(十勝大王) 영신인사(靈神人士) 진인(眞人)으로 궁자해인(弓字海印) 함마지도(降魔之道) 궁을지간십승지(弓乙之間十勝地)를 …

「삼풍론(三豊論)」

… 선천하도(先天河圖) 후천낙서(後天洛書) 중천해인(中天海印) 이기삼풍(理氣三豊) … 삼풍해인(三豊海印) 역일리(亦一理)니 해인조화(海印造化) 무위화(無爲化)라. …



『격암유록』 「도부신인」

「송가전(松家田)」

… 후천낙서(後天洛書) 우이거(又已去)로 중천인부(中天印符) 갱래(更來)하니 … 해인삼풍(海印三豊) 아미타불(亞米打불) (亞의 가운데줄이없는것) 불도창성(佛道昌盛) 이 아닌가? 신운신운(新運紳運) 갱신운(更新運)에 선후과거(先後過去) 중천래(中天來)라. 용병회춘(勇病回春) 해인대사(海印大師) 병입골수(病入骨髓) 무도자(無道者)를 불사영생(不死永生)시키려고 하라 리기(河洛理奇) 해인묘법(海印妙法) 만세선정(萬歲先定) 은장(隱藏)터니, 동서각국(東西各國) 제외(除外)하고 예의동방(禮義東方) 근화국(槿花國)에 자하도(紫霞島)로 건너와서, 남지조선(南之朝鮮) 선정(先定)하야 … 해인삼풍불각(海印三豊不覺)하고 … 일심수도진정자(一心修道眞正者)는 해인선약(海印仙藥) 바다 더 살고, 무소불능(無所不能) 해인화(海印化)로 이출도해(利出渡海) 변천지(變天地)를 선후중천(先後中天) 해인선법(海印仙法) … 진사성군정도령(辰巳聖君正道令)이 … 남해도(南海島)로 건너와서 … 자하도(紫霞島)에 정좌(定座)하사 …

「도부신인(桃符神人)」

… 석백해인(石白海印) 천권(天權)으로 천하소탕(天下消蕩) 함마세(降魔世)를, 세인조소(世人嘲笑) 기롱(譏弄)이나 최후승리(最後勝利) 궁궁(弓弓)일세. … 도산이해(倒山移海) 해인용사(海印用事) 임의용지(任意用之) 왕래(往來)하며 … 사자회춘(死者回春) 갱생(更生)하니 불가사의(不可思議) 해인(海印)일세. …

「말중운(末中運)」

… 진인용법(眞人用法) 해인조화(海印造化) 임의(任意)라네. …*

김택 박사 / 신종교 연구가

∴_()_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 《13회》

- 목차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3. 무아경지품(無我境地品)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5. 겁수품(劫數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 불경(佛經)을 가리켜 대장경(大藏經)이라 한다. 대장경이란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경전이라는 뜻이다. 그 비밀이란 무엇에 대한 비밀인가? 여래(如來)에 대한 비밀이다. 그러므로 여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대장경(大藏經)을 푸는 열쇠가 된다. …

(지나호에 이어서)

〈격암유록 도부신인(格庵遺錄 桃符神人)〉

三聖一合 神人動作 石白海印天權 삼성일합 신인동작 석백해인천권 세 성인께서 하나로 합하여 신(神)의 사람으로 활동하시니 흰 돌과 해인은 하늘의 권세로다.

天下消蕩降癡世 彌勒世尊無量之意 천하소탕강마세 미륵세존 무량지의 마귀세상을 항복받아 천하를 소탕하시는 미륵부처님의 한량없는 뜻이라.

여기서 석백(石白: 흰 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간자에게 흰 돌을 증표로 준다고 하였고, 또한 구전(口傳)되어 오는 한국의 비결(秘訣)에 계룡(溪龍)의 돌이 희어질 때 진인(眞人) 정도령(正道令)이 출현한다는 말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흰 돌'이란 '해인(海印)'과 마찬가지로 미륵부처님의 증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압행여사가 마패를 가지고 있어야 자격이 인증되듯이 석백 해인을 가지고 있으며 천권(天權), 즉 하늘의 모든 권세를 권 것이라는 말이다.

〈증일아함경 권9(增一阿含經 卷九) 有二人於如來衆而興誹謗謂非法言 유이인어여래중이 흥비방위비법언 여래부처님들 가운데 두 분께서 나오게 되면 비방이 일어나 말하기를 법이 아니라 한다.

謂二人誹謗如來 非法言眞法 當言眞法 위이인비방여래 비법언진법 당언진법 그래서 두 사람을 가리켜 비방여래라고 한다. 법이 아니라 하지만 참법이요 마땅히 말하되 참법이다.

比丘當作是學 비구당작시학 비구(比丘)야 마땅히 이를 배워라.

미륵부처님은 세 분이신데 그 중 두 분께서 세상에 나오시는데 세상사람들은 생전 들어보지 못한 법인지라 비방하여



개운조사께서 도장산 심원사(道藏山 深源寺)에서 지리산으로 가실 때 손가락으로 바위에 쓴 글씨 “洞天(동천)”

사이바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 말씀은 참 진리이니 미래에 이 같은 일이 있거든 마땅히 그 법을 배우라는 말이다. 두 분의 여래께서 나오셔서 세상의 비밀을 받으시지만 마지막에 가서 한 분의 여래께서 완성을 이루시어 모든 중생을 해탈케 하신다.

〈증일아함경 권3(增一阿含經 卷三) 有一人出現於世 便有一人入道 유일인출현어세 편유일인입도 한 사람이 세상에 출현하는데 문득 그 한 사람이 도에 들어와

亦有二啼 三解脫門 四啼眞法 五權六邪見 七覺意 八道品 九衆生 居如來十力 十一慈心 역유 이제 삼해탈문 사제진법 오근 육사견 칠각의 팔도품 구중생거 여래십력 십일자심 또한 2제, 3해탈문, 4제진법, 5근, 6사

수 없다.

出現於世 無明大闇 使自消滅 출현어세 무명대암 사자소멸 여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니 무명의 큰 어둠이 문득 스스로 멸한다.

諸衆生便增壽益 顏色光潤 氣力熾盛 快樂無極 音聲和雅 衆生安隱 猶其福德 便有智慧光明 제중생변증수익 안색광윤 기력치성 쾌락무극 음성화아 중생안은 획기복덕 편유지혜광명 모든 중생이 수명을 더하고 안색이 빛나고 윤택하며 기력이 치성하고 쾌락이 무극하고 음성이 화아하며, 중생이 안은하여 그 복덕을 얻어 문득 지혜와 광명이 있느니라.

多薩阿闍阿羅呵 三耶三佛 다살아갈아라하 삼야삼불 다살아갈아라하 삼야삼불 그분을 다살아갈아라하 삼신일체의 부처님이라 한다.

위의 글로 볼 때 세상에 출현하여 중생을 해탈케 하시는 분은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겁수품(劫數品)

… 한 비구(比丘)가 있어서 세존(世尊)께 물기를, 겁(劫)에 한계(限界)가 있습니까 하니 …

불경은 미륵여래(彌勒如來)의 출현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난설(亂說)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은 왜 그런가?

〈격암유록 말운론(格庵遺錄 末運論)〉

自古豫言秘藏之天 隱頭藏尾不覺書 자고예언비장지문 은두장미불각서 예로부터 예언이란 비밀히 감춘 글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숨기고 꼬리를 감춰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한다.

겁(劫)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말이다. 한편에서는 백 년을 1겁이라고 표현한 곳도 있고 무한한 세월로 묘사한 부분도 있다.

사망 십리나 되는 궤짝에 겨자씨를 가득 채워 넣고 백년마다 하나씩 꺼내어 겨자씨가 다 없어질 때가 1겁이라고 하였고 또 한편에서는 사망 십리에 돌을 쌓아 놓고 3년마다 한 번씩 건너가 내려와서 놀다가 올라가는데 돌이 날개죽지에 다 닳아져 없어질 때가 1겁이라고 했다. 왜 그렇게 설정했느냐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도록 장어를 놓아 겁의 진실한 뜻을 가려서 알릴 때가 될 때까지 인봉(印封)해 두기 위한 방법인 것이다.

이것은 증일아함경 권 48에 있는 귀절이다.

〈증일아함경 권 48(增一阿含經 卷四十八) 劫有二棕 小劫大劫 劫유이종 소겁대겁 겁(劫)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소겁과 대겁이다. (계속)*